

#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 복음, 23회, 왕국에 대한 식사 설교, 루가 14장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누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3, 왕국에 대한 식사 시간 담화, 누가복음 14입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Biblica e-learning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도의 필요성과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적 선언에 대해 도전하셨고,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식사 시간에 등장하시고, 그 식사 시간에서 다양한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한 번의 녹음으로 담으려고 노력할 이 특정 장에서, 저는 예수님이 왕국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에 대한 기초를 놓으시면서 가진 몇몇 만남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전 강의 중 하나에서 저는 18년 동안 병을 앓다가 회당에서 고침을 받은 그 여자에게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했고, 회당의 관장은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가 식사 장면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루가 복음서의 식사 장면에 대해 생각할 때 문화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처음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특별한 상황이 우리에게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식사 장면은 1세기의 상황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능입니다.

식사 시간, 특히 사람들이 외부인을 초대하기 위해 식사를 하는 전통적인 시간을 넘어설 때, 그것은 가족이 신뢰하는 사람, 가족이 그들의 공간으로 초대하고 싶어하는 사람, 가족이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정의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주인과 손님 모두 이것을 명예로운 제스처로 여기고 매우,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초대될 때마다 누군가가 그를 더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는 내부 모임에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예수를 영예로운 손님으로 모시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의 명예 의식을 가진 누군가의 사회적 기능을 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가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루가는 종종 또 다른 그룹인 노모스, 즉 율법학자들을 언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도 거기에 있을 수 있으며, 루가가 바리새인들과 함께 율법학자들이 있었다고 언급할 때마다 그는 항상 식사 시간에 일어날 갈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을 인그룹 행사로 생각해보세요. 아웃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소에 초대받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본 것처럼 손을 물에 담가 씻는 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식사 담화를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만나 식사를 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토론하고, 지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매우 좋은 학문적 방식으로 앉아서 훌륭한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그리스-로마 심포지엄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제2성전 유대교에서 종교적 정당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식사 시간을 다루는 본문을 살펴보면, 다시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이 문화권에서 명예는 매우 중요하고, 수치는 큰 일입니다.

따라서 명예로운 손님이 되거나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실제로 매우 해롭습니다. 우리는 식사 시간에 바리새인과 함께 있는 예수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배경은 주인과 손님 사이의 주고받는 명예로운 공간이 실제로 갈등과 분쟁의 어색한 순간으로 바뀔 수 있는 장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보통 하는 일 중 하나는 이미 인그룹에 속한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원한다면 그 인그룹의 미래 구성원이 와서 그룹에서 그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로마 세계의 식사 시간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배경으로 하여, 누가복음 14장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관원 한 사람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 사람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보라, 그 앞에 죄를 버린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 하냐? 하되, 그들은 잠잠히 있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주시고 돌려보내셨느니라.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소가 있으면 즉시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들은 이 말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여러분이 구절에서 보는 식사 시간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이 모임에 바리새인이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3절은 이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수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지만, 예수께서 이 사람을 언제 고치실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담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식탁 교제였고, 우연히도 안식일에 식탁 교제였습니다.

안식일은 이미 누가의 담화에서 일찍이 언급되었으며,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실 때마다 바리새인이나 회당의 지도자는 그것을 일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그런 의미에서 종종 좋은 인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의 교제는 내부 서클에만 국한되므로, 예수께서 손님이셨을 때 예수께서는 주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표시로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앞서 언급했듯이, 그 자리에 있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갈등이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치유된 사람은 부종을 앓고 있었습니다. 부종이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부종이 어떤 상태인지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질환 중 하나라고 말해야겠습니다. 부종은 피부에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고, 어떤 종류의 체액이 있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종증이 나병으로 이어지거나 나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을 대하는 데 있어 그 자체로 부정확한 요소가 될 수 있는 피부 질환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을 보기 위해 7절부터 읽어 봅시다.

이제 그는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식사 장면에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명예로운 자리를 택했는지를 보면,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결혼 잔치에 초대했을 때, 명예로운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보다 더 고귀한 사람이 그에게 초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을 초대한 사람이 와서 당신에게,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부끄러워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를 받으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와서 당신에게, 친구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과 함께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누구나 낮아질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12절. 그가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만찬이나 잔치를 베풀 때에는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너를 다시 청하여 보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절름발이들과 눈먼 사람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이 네게 보답할 수 없으므로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의로운 자들의 부활의 날에 보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특정 구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빠른 사항. 예수께서 명예로운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첫 번째 사례에서, 예수께서는 지혜 작가들이 과거에 말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승진하는 것이 강등되는 것보다 항상 낮습니다.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 식탁이나 연회에서의 위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미국, 영국 또는 세계 다른 곳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높은 식탁이 있고 다른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바리새인과 대중 이미지에 집착하는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의 집단에서 결혼 연회에 초대를 받았을 때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명예로운 자리로 승진하는 것이 자신에게 특정한 명예의 지위를 부여하고 강등되는 자리에 앉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명예와 수치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께서는 명예와 지위를 드러내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명예로운 자리로 높여질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 그가 연회의 주인에게 돌아섰을 때, 당신은 여기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명예와 그 문화의 다른 부분, 즉 호혜의 요소가 환대의 일부인 환대 문화에 호소합니다.

위대한 사람, 중요한 사람은 연회에서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특정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들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모임에 초대받을 수 있는 상호주의 규범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두 가지 근거로 주인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는 도시 배치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연회에 초대하는 사람. 두 번째 문에서, 누구를 초대해야 할지 언급했을 때, 그는 청중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쉽게 화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다시 초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대 문화에서 보답의 관습으로 당신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야 할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밝힙니다.

이들은 그들이 멸시하고 그들의 식탁에 앉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는 주인에게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눈먼 사람을 초대하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들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와우.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는 사회적 참여를 보여주기 위해 회개의 직접적인 도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루카의 방식으로, 루가는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규범은 가정됩니다.

나는 교제 테이블에 앉는 것과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모임에서 사람들이 명예를 얻기 위해 특정 장소에 앉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거의 그들 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예의와 예의에 대한 예수의 호소는 바리새인들에게 무언가를 자극합니다. 존경받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세는 이후의 진술에서 그들이 소외된 사람들을 식탁에 데려왔다는 사실을 묻는 지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주인이 그들에게 식탁에서의 승진과 명예를 줄 때 항상 좋은 일임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바로 직접적인 진술입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길을 선택하면 그들은 높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형제들을 초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매우, 매우 강력하게 이것으로 이끅니다.

친구를 초대하지 마십시오.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마십시오. 불구자를 초대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세요. 절름발이를 초대하세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교제의 식탁에 모든 사람이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과 고귀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회 기관이나 사회 부문도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글을 읽을 때 배경에서 울리는 것 중 하나는 잠언에서 나온 지혜의 말씀인데,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 투사하시는 것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잠언 25장 6~7절을 읽어보세요. 왕 앞에 나서지 말고 위대한 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

고귀한 자들 앞에서 낮게 처형당하는 것보다, 여기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은 문화적 예의와 존중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지만, 사람들이 명예에 집착하면 스스로 임명하고 자신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예의는 다릅니다.

예수께서는 연회 초대에 대해 말씀하시고, 식사 장면,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하여 이끌어낼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15절에 내가 읽었는데, 그분과 함께 식탁에 기대앉은 사람 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연회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연회를 위한 시간에, 그는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오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말하도록 그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나가서 그것을 봐야 합니다. 실례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소 멍에 다섯 개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살펴보러 갈게요, 실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맞이했으니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와서 주인에게 이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화가 나서 종에게 이르되, 빨리 성읍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눈먼 자와 절름발이를 데려오라. 이전 비유에서 언급된 사람들의 이름을 주목하라. 그리고 종이 이르되, 주인님, 당신이 명령하신 것을 하였거늘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인에게 큰길과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제로 불러들여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초대받은 그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이 만찬의 비유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관찰합니다. 또 다른 진술은 비유를 주는 것을 유발할 것입니다.

한 손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식사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 일이 시작되는데, 예수께서 연회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초대받고 변명을 한 세 사람을 주목하세요.

그들은 연회에 참석해야 할 올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변명을 했습니다. 그 변명은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나는 호스트의 감정적인 반응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분노와 좌절에 빠져서 두 번째 초대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불구자이고, 절름발이입니다.

그리고 하인은 가서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가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언어를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강요합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모임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느낄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것이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주목하세요. 예수께서는 처음 세 무리가 완전히 나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께서 몇몇 유대인이나 귀족들을 연회에 초대하셨지만 그들이 실패하자 다른 사람들로 대체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종종 읽힙니다.

아마도 더 나은 해석은 예수께서 귀족 집단과 대화하심으로써 이전에 호스트에게 언급하신 사람들을 그런 모임에 초대해야 할 사람들로 초대하려고 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앓은 사람들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 예수께서는 그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을 자기 무리에 데려올 필요성을 고려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아무도 배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구자들, 눈먼 사람들, 절름발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을 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리를 얻을 것입니다.

저는 조엘 그린의 루가 복음서에서 이 비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주 잘 요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용합니다. 사실, 요점은, 이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변화하는 이해에서 일하면서, 이 집주인은 식탁에 앉은 손님 중 누구라도 포함시킬 것이고, 아무도 너무 견고하거나

너무 비참해서 식탁에서 친구로 여겨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줄과 골목은 멸시받는 직업, 가족 유산, 종교적 부정, 빈곤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거주지가 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예수 이야기의 주인을 예수의 이전 조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일반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지위와 권력과 특권의 서클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푼 엘리트의 예로 식별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주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식탁에 자리를 잡고 초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이 청중들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알고 계셨기에, 제자도의 비용과 조건을 이해하도록 그들에게 도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난한 사람, 절름발이, 눈먼 사람, 불구자, 이방인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고, 그는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짓고자 하여 먼저 앉아서 비용을 헤아려 보고 완성할 만한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기초를 놓고도 마치지 못하니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짓기 시작하였으나 마치지 못하였도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서 먼저 앉아서 자기가 만 명으로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맞설 수 있을지 의논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절을 보내어 화친 조건을 청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소금은 좋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었다면 어떻게 그 짠맛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흠에도 손수 쌓는 데도 쓸모가 없다. 그것은 버려질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율법학자, 청중에게 제자도에 대한 이해를 검토하고 제자도의 대가를 받아들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누가복음 25장에서 찾을 수 있는 맥락은 누가 여행 모티브를 설정하여 예수님이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으며, 이제 청중은 그가 다루어야 할 큰 무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찰해야 할 또 다른 것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관계적 장애물입니다. 이 청중에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포함될 수 있지만, 누가는 그것이 많은 군중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군중이라고 암시하고, 그곳에서 그는 그들에게 친족 관계와 친족 관계보다 왕국 사명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이전에 주었던 도전을 다시 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진정한 추종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멸시, 탄식, 그런 의미로 미워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는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기서 미움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충성심을 포기하고 왕국의 사명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청중에게 제자도의 비용을 고려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제자도에는 고통이 포함될 수 있으며,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현명한 건축가가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는 것과 같고, 왕은 전쟁 때 군대를 보내어 전장에서 싸우게 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합니다.

보시다시피, 비용을 세는 것은 예수가 고통의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즉, 예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의 기록 이전에 이미 일어난 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가 죽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왕국의 비용을 위한 희생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왕의 비유에서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소유물조차도 전쟁의 언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전투에 들어가기 전에 비용을 세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왕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왕국의 지위를 우선시하며, 왕국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삶의 모든 영역의 사람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매우 염려하십니다. 그러나 사람 외에도 사물과 소유물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리를 찾으려는 추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소금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반반씩 나누어서 본질의 절반을 잃고 나머지는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비료나 보존에 좋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와!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소금은 좋지만 소금이 맛을 잃었다면 어떻게 짠맛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하고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여기서, 저는 Luke Timothy Johnson이 연회의 비유와 제자도의 요구가 함께 여기에서 같은 요점을 만들고 선지자가 내린 하나님의 부르심이 삶에 대한 다른 모든 요구를 상대화해야 한다고 썼을 때 이것의 본질을 포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는 사람과 사물과의 얽힘이 초대 거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요구 사항은 제자도에 대한 선택이 소유물이나 사람에 대한 완전한 관여에 대한 선택을 요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소유물이나 사람에 대한 요구 사항에서. 여기에는 온화하거나 안심시키는 것이 거의 없지만 존슨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좋아합니다. 하지만 소금에 대한 마지막 말씀에서 암시하듯이, 두 가지를 모두 하려는 제자도의 모든 양식은 소유물과 선지자의 부름으로 정의되려고 시도하며, 마치 맛이 없는 소금과 같을 것입니다.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던져집시다. 존슨은 연회와 제자도의 과정 사이의 관계를 포착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암시하려고 합니다

소유물과 사람들에 대한 집착과 관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14장, 식사 담화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명예와 수치심에 집착하는 문화에서 명예를 추구하는 방법에 도전하는 방법을 찾으신 곳입니다. 겸손을 고귀한 미덕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제자, 바리새인, 변호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임에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우선순위를 재정비 해야 합니다 . 이 우선순위에는 사람들의 참여와 물질적 소유에 대한 헌신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포기하라고 부르지 않으시지만 , 우리를 몰아붙이고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왕국의 요구를 우선시하라고 훈계하십니다. 그는 왕국에 있는 것이 가난하다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왕국의 한 가지 원칙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절름발이이고, 불구가 되고, 눈먼 사람들을 식탁에 초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

그는 왕국에 있는 것이 누군가를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는 왕국에서도 명예로운 자리가 중요하지만,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하며, 그 겸손한

자세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원하는 명예를 안겨줄 사회적 지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제자도의 비용을 세어보고, 진지하게 세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살았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추종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마지못해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주인의 뜻을 행하고자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식사 시간의 중요성을 소개하면서 시작했는데, 마치 파티 시간과 즐겁게 식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지만, 평소처럼 우리는 식사 시간이 예수께서 누구를 포함시킬지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이라면 요루바족이 이그보족과 함께 저녁 식탁에 초대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우사족과 이그보족은 요루바족의 저녁 식탁에 초대됩니다.

가나에서 따라가고 있다면, 신의 왕국에서 아칸족 식탁에는 노그 나족, 이그보족, 하우사족, 그리고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부족들이 초대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아무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인종적으로 백인, 흑인, 갈색인종, 황인종, 머리카락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모두 신의 왕국의 만찬 식탁에 초대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에서 일하는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드신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왕국의 요구 사항은 우리가 소유물을 사람보다, 지위와 존엄성을 평범한 것보다 우선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며, 저는 저와 함께 이 식사 시간 담화에서 설명되는 왕국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제자도의 비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독교 활동에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이 포함될 수 있고, 대중의 경멸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기로 선택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제자도의 비용과 제 결심에 대해 생각할 때 제 생각을 깊이 요약해 주는 일요 학교 노래를 좋아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 그것이 당신의 노래가 되기를, 그것이 당신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식사 담화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 강의를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3, 왕국에 대한 식사 설교, 루가 14입니다.